



[SRI 시민패널조사]

수원시 청년·중장년 실태조사와 시사점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farnia@suwon.re.kr

정혜진 과장
김재이 위촉연구원
정재진 데이터분석센터장

요 약

Ⅰ ‘독립’이 늦어지는 수원 청년, 가장 시급한 정책은 ‘주거 문제 해소’

- 수원 거주 청년의 39.9%는 부모와 동거, 주거 불안정으로 독립 지연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중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주거 정책 확대 필요

Ⅱ 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은 중장년, 가장 필요한 정책은 ‘노후설계’

-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하나 현재 노후준비 부족
- 중장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개인별 맞춤형 노후 설계지원

정책제언

Ⅰ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응 정책 마련 필요

- 청년
독립을 준비하는 수원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정책 확대 필요
[현행] 주거 정책은 취약청년 대상의 주거 서비스 지원과 주거비 경감 대책 위주
[제안]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법률 서비스(예: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등) 제공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성 확보 노력 지속 필요
- 중장년
은퇴 후 안정적 삶의 보장을 위한 다차원적 재기 프로그램 필요
[현행]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중장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
[제안] 소득활동을 원하는 중장년 수요를 반영한 취업특화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필요

1 수원시정연구원 시민패널조사 개요

□ 수원시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현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패널조사 실시

○ 2023년 4분기 패널조사 개요

조사목적 : 시정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구축, 시민들의 시정현안 인식과 변화 파악

조사대상 : 수원시정연구원 패널 2,378명(유효설문 1,333명¹⁾)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조사시기 : 2024.12.04.~ 2023.12.12.(9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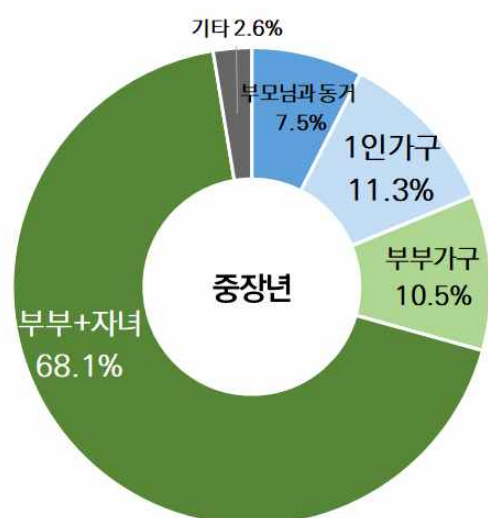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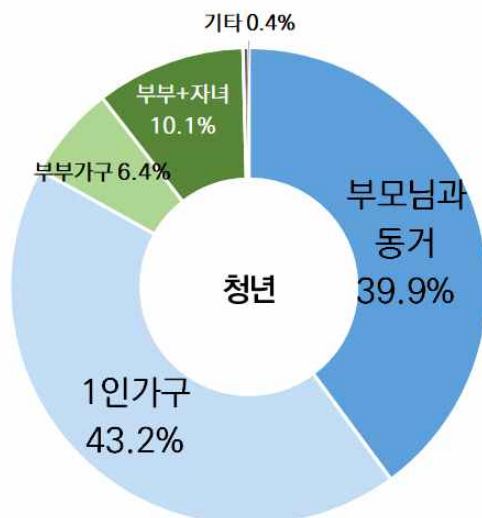
조사내용 : (정기조사) 수원시 생활만족도 중 생활환경, 복지환경 세부사항 만족도 등 연간 모니터링 후 합의 도출
(선택조사) 생애주기별 수원시민 생활상 실태, 맞벌이 가구 실태

2 수원 청년²⁾과 중장년³⁾의 삶

□ 수원 거주 청년은 ‘부모님과 동거’ 비율이 높아 독립이 늦어지는 경향 보임. 청년은 관리전문 직일수록 ‘부부가구’ 또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율 높게 나타남

-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청년은 1인가구 비율이 43.2%로 가장 높고, 부모님과 동거(39.9%), 부부+자녀(10.1%) 순임. 중장년은 부부+자녀 가구가 68.1%로 가장 높고, 1인가구(11.3%), 부부가구(10.5%) 순

<가구구성>



1) 청년 534명, 중장년총 799명

2) 청년: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적용

3) 중년: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만 35세 이상 49세 이하 적용
장년: 노년층 기준인 65세 이하로 중년을 제외한 연령,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 청년의 이행기적 특성⁴⁾에서 ‘독립’은 중요 키워드, 수원 청년 중 학생 68.6%는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으며, 10명 중 3~4명은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화이트컬러와 블루컬러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고, 관리전문직의 경우 부부가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직업별 청년의 가구 구성>

(단위: %)

구분 ⁵⁾	부모님과 동거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자녀	부부+부모(부양)
관리전문직	36.6	38.7	11.8	12.9	0.0
화이트컬러	34.8	51.7	6.0	7.5	0.0
블루컬러	34.5	55.2	6.9	3.4	0.0
학생	68.6	22.8	0.0	8.6	0.0
기타	58.6	10.3	3.5	24.1	3.5

▣ 청년과 중장년 소득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이며 청년은 ‘사적이전소득’, 중장년은 ‘사업소득’ 비교적 높아

-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된 방법은 청년과 중장년 모두 근로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남

청년은 가족/친척/지인 등의 도움을 받는 사적이전소득이 중장년의 약 2배이며, 중장년은 청년에 비해 사업소득과 금융 및 부동산 소득 비율이 높게 나타남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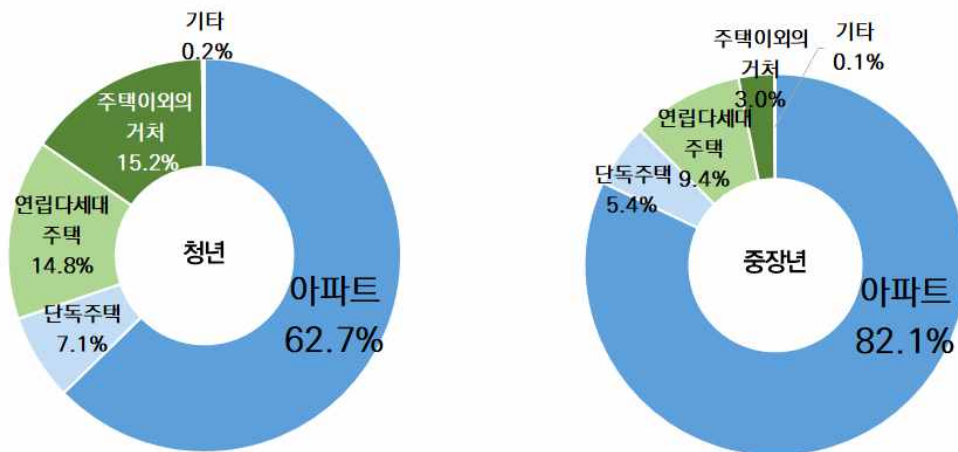
- 4) 국제연합은 청년(Youth)을 아동기의 의존에서 성인기의 독립으로 이행하는 시기로 정의하며(이정봉, 2021), 이행기적 특성으로는 경제적 독립, 분가, 결혼, 출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
- 5) **관리전문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화이트컬러**: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블루컬러**: 판매종사자, 농업어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청년과 중장년은 주로 ‘아파트’에 거주,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주택 이외의 거처(비주택)⁶⁾’에 거주하는 비율 높게 나타나 청년의 주거 안정성 확보 노력 필요

○ 청년은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이 중장년에 비해 약 5배 높아

청년의 62.7%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주택 이외의 거처(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15.2%로 높게 나타남
중장년의 82.1%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연립·다세대 주택(9.4%),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5.4% 순

<주택 형태>



□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고, 주거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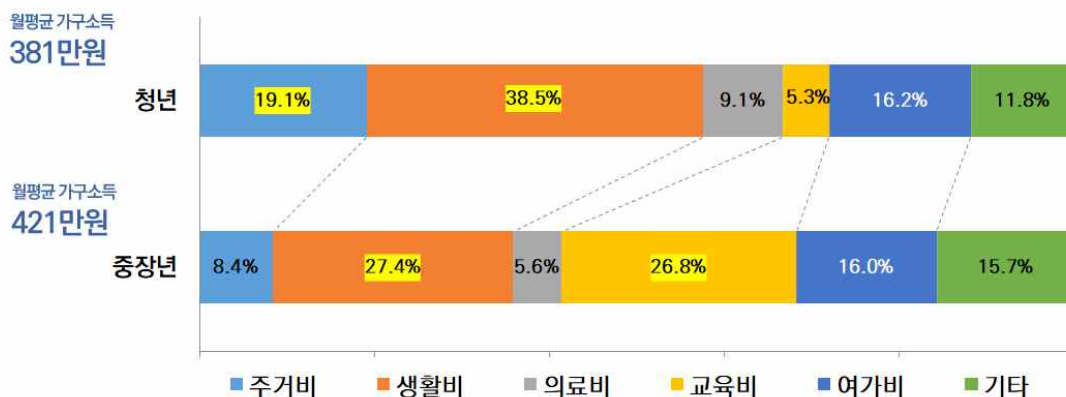
○ 가구별 월평균 가구소득(균등화)은 청년 381만원, 중장년 421만원으로 나타남

○ 월평균 가구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은 생활비가 38.5%로 가장 높고 주거비(19.1%), 여가비(1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장년은 생활비가 27.4%로 가장 높고, 교육비(26.8%), 여가비(16.0%) 순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높으며, 청년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서도 ‘주거’정책(주거비 지원, 청년주택 공급 등)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청년층 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주거(43.3%), 일자리(40.6%), 복지·생활(10.9%), 교육·문화(5.2%) 순

<월평균 가구소득과 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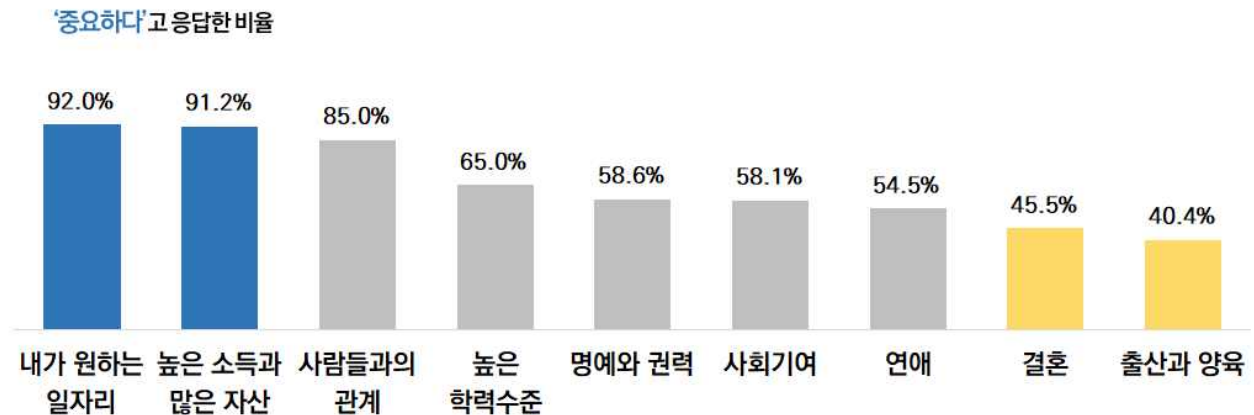
6) 주택 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을 의미함

3 청년의 현재 삶과 미래 실현을 위한 중요 요인

□ 청년 삶의 중요 요인은 ‘내가 원하는 일’과 ‘높은 소득과 자산’이며,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관심 낮아

- 청년의 삶에서 중요한 요인은 ‘내가 원하는 일(92.0%)’과 ‘높은 소득과 자산(91.2%)’이 높게 나타났고, ‘결혼(45.5%)’, ‘출산과 양육(40.4%)’에 대한 중요성은 낮게 나타남

<삶의 중요 요인>



- 결혼, 출산·양육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혼인상태와 성별에 따라 차이 보임

혼인상태별로 결혼에 대한 중요 정도 차이 있음. 미혼자의 39.3%, 기혼자의 80.5%가 결혼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69.4%, 여성의 38.5%가 중요하다고 응답

출산과 양육은 미혼자의 35.3%, 기혼자의 69.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의 60.3%, 여성의 34.6%가 중요하다고 응답

<혼인상태와 성별에 따른 삶의 중요 요인>

(단위: %)

구분		청년 삶의 중요 요인(상위 1, 2순위)		청년 삶의 중요 요인(하위 1, 2순위)	
		내가 원하는 일/자리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	결혼	출산과 양육
혼인상태별	미혼	90.9	90.5	39.3	35.3
	기혼	97.6	95.1	80.5	69.5
성별	남성	90.1	91.7	69.4	60.3
	여성	92.5	91.1	38.5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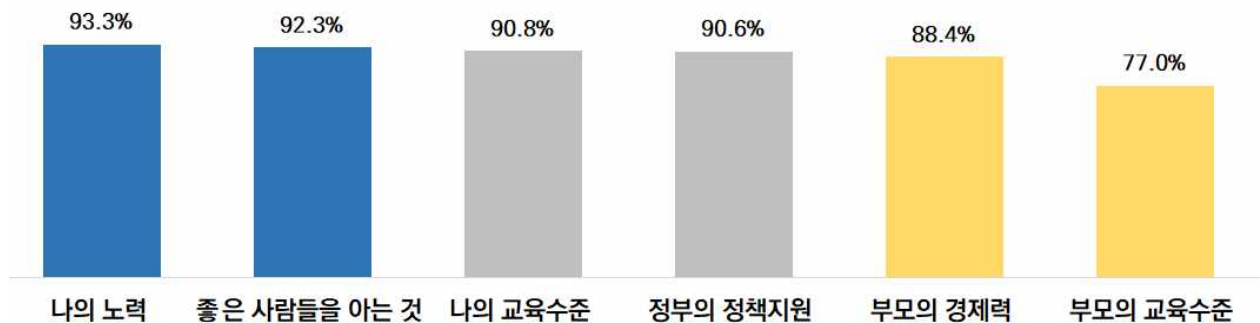
※ 주: 7점 리커트 척도를 3점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 합산이 전체 평균과 다를 수 있음

□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부모’ 보다 ‘나’의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

- 청년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 요인은 ‘나의 노력’이 93.3%로 가장 높고,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92.3%)’, ‘나의 교육수준(90.8%)’, 정부의 정책지원(90.6%) 순으로 나타남. 즉, 청년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교육 수준보다는 ‘나’의 역량(노력과 교육수준)이 중요하다고 인식

<미래 실현을 위한 중요 요인>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4 중장년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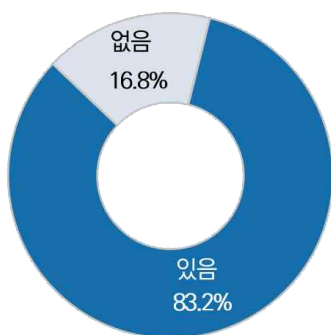
□ 중장년 2명 중 1명은 ‘노후준비 부족’, 가장 필요한 중장년 지원 정책은 ‘노후설계 지원’

- 중장년 83.2%는 은퇴 후에도 근로활동 지속하고 싶어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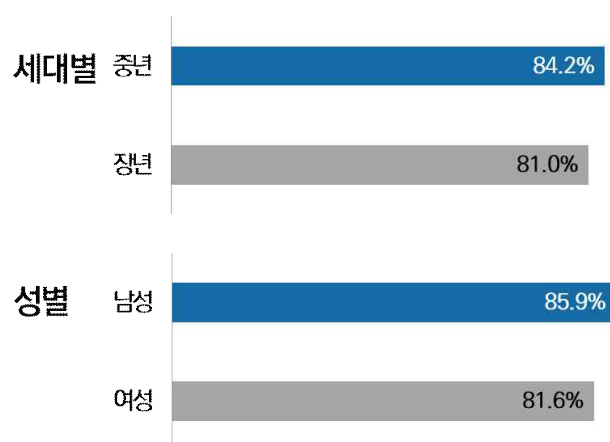
세대별로 살펴보면 중년(84.2%)이 장년(81.0%)에 비해 은퇴 후 근로활동 지속 의향이 높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85.9%)이 여성(81.6%)에 비해 은퇴 후 근로활동 지속 의향이 높게 나타남

중장년 월평균 근로소득은 534만원이며, 희망하는 은퇴 후 근로소득은 294만원

<은퇴 후 근로활동 지속 의향>



<세대별, 성별 은퇴 후 근로활동 지속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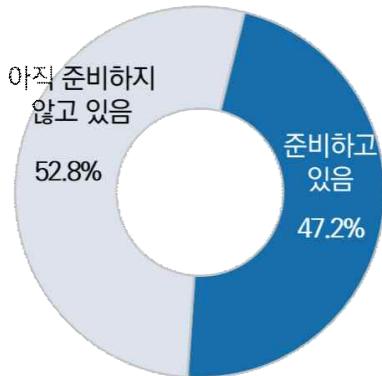


※ 주: 은퇴 후 근로활동 지속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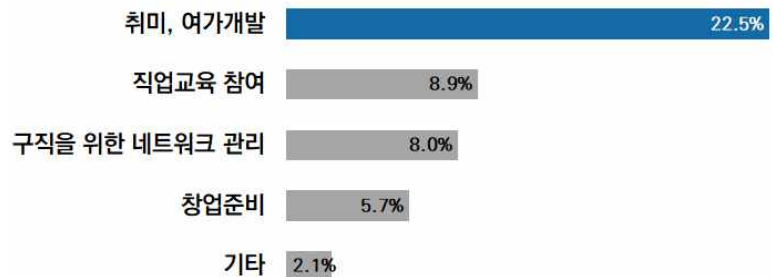
○ 중장년 47.2%만이 퇴직 후 근로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

노후생활 준비 유형을 살펴보면, 취미, 여가개발이 22.5%로 가장 높았고, 직업교육 참여(8.9%), 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8.0%), 창업준비(5.7%) 순

<퇴직 후 근로활동을 위한 준비>



<퇴직 후 근로활동 준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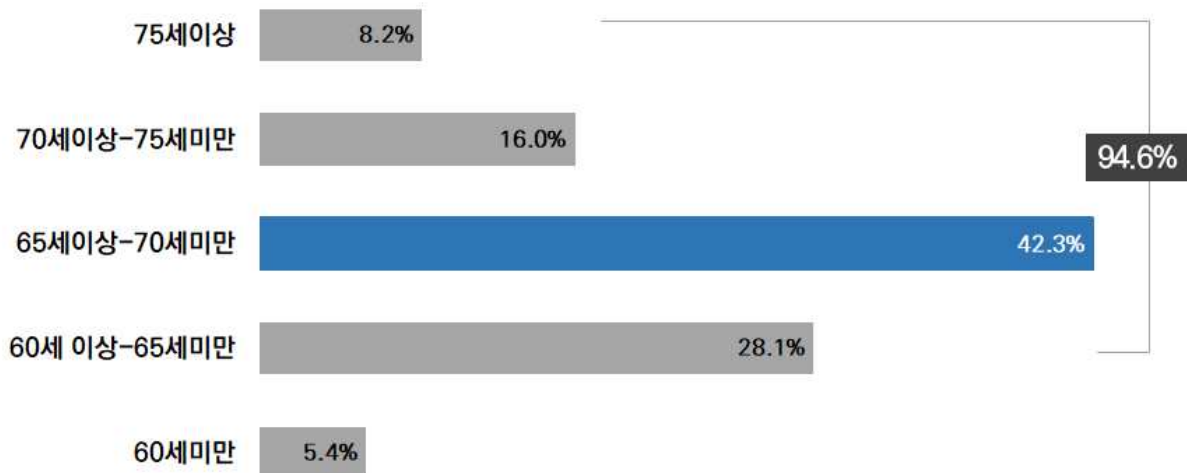
※ 주: 퇴직 후 근로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중장년은 65세 이상~70세 미만까지 근무하고 싶어하는 비율 가장 높아

○ 중장년은 정년 이후(60세 이상)에도 근무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활동 희망 연령은 65세 이상~70세 미만이 42.3%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65세 미만(28.1%), 70세 이상~75세 미만(16.0%) 순

<근로활동 희망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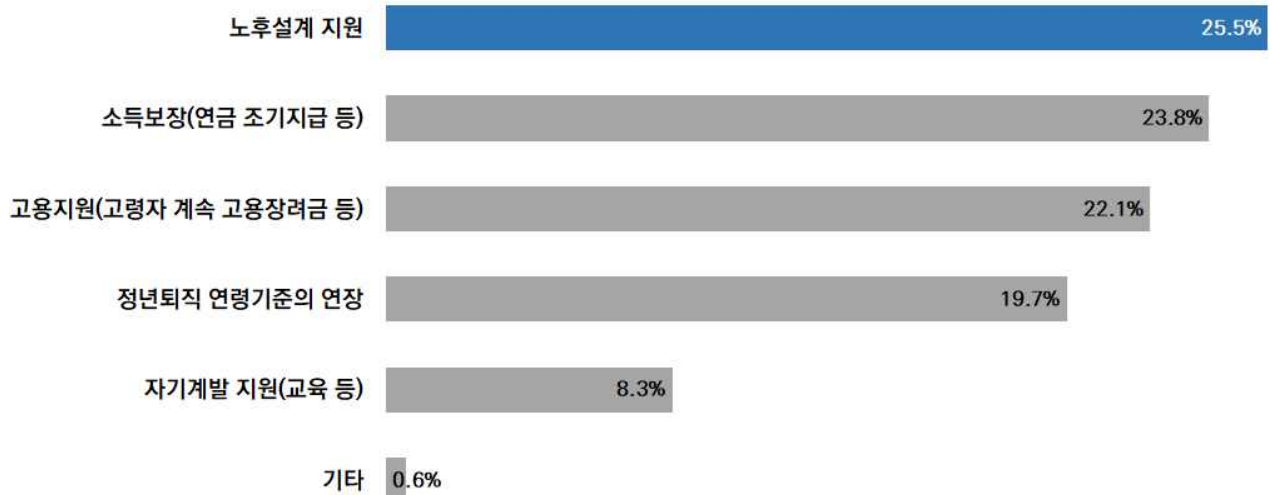


□ 중장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노후설계 지원’

- 중장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노후설계 지원(25.5%)이 가장 높고, 소득보장(23.8%), 고용지원(22.1%), 정년퇴직 연령기준의 연장(19.7%) 순

중년과 장년 모두 노후설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중년은 노후설계 지원(25.5%), 소득보장(25.1%), 정년퇴직 연령기준의 연장(21.7%) 순. 장년은 노후설계 지원(25.5%), 고용지원(24.7%), 소득 보장(21.1%) 순

<가장 필요한 중장년 지원 정책>



5 시사점

□ 수원시 청년·중장년 생활 실태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

- 수원시 청년은 부모동거 비율이 높고 주거 불안정으로 독립이 지연되는 경향을 보임. 독립을 준비하는 수원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정책 확대 필요

현재 수원시 청년 주거 정책은 취약청년 대상의 주거 서비스 지원과 주거비 경감 대책 위주임. 향후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법률 서비스(예: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등)제공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성 확보 노력 지속 필요

- 수원시 중장년 2명 중 1명은 노후 준비 부족하고 ‘노후설계’지원에 대한 필요성 높게 나타남. 은퇴 후 안정적 삶의 보장을 위한 다차원적 재기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 준비도 제고 필요

현재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차원의 정책 추진 중. 여기에 더해 중장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취업특화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필요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